

2023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백서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인류 공영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세계 변화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2015년 12월 (주)한샘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의 출연으로 여시재가 설립됐으며,
2023년 3월 태재미래전략연구원으로 개편했습니다.

2023년 개교한 혁신적 교육기관 태재대학교와 더불어
인류 공영을 선도하는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최고의 싱크탱크 및 정책 전문가들과 지식을 나누고 교류하며,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정파를 초월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 세미나와 포럼, 출판 활동, 국내외 유력 미디어와의 협업을 통해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등에서 협력으로의 대전환

중국의 부상으로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 상황을
협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속불가능 극복하는 지구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핵 확산과 테러리즘 등 지속불가능에 직면한
인류의 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사회 변화

기술 혁명이 인류를 위해 선용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 시대 가치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지금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사회에서 추구할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장	김도연	前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총장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	---------------------------------------

이사	김성환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원장 前 외교통상부 장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석좌교수
	김우승	한양대학교 교수 前 한양대학교 총장
	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초대 원장 한국인공지능제조이니셔티브 이사장
	임창훈	태재홀딩스 사내이사 前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감사	이진성	前 헌법재판소장
	이경태	연세대학교 교수 前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

자매 기관



2015	12월	재단법인 여시재 설립 이헌재 이사장 취임
2017	8월	이광재 원장 취임
	11월	2017 여시재포럼 '미래로 연결된 동북아의 길, 나비프로젝트' 개최
2018	11월	2018 여시재포럼 in 베이징 '신문명도시와 지속가능발전' 개최 2018 여시재포럼 in 서울 '변화 속의 한반도와 나비프로젝트' 개최
2019	3월	2019 보아오포럼 '한·중 경제인 라운드 테이블', '지속가능한 도시' 세션 개최
	7월	2019 Future Consensus Dialogue '한·미·일 협력 지속가능한 번영과 미래' 개최
	11월	2019 여시재포럼 '신시대, 신문명, 신문명도시' 개최 여시재 신문명대담 '위기의 인류, 새로운 문명에서 답을 찾다' 개최
2020	5월	'여시재 글로벌 미래대화' 개최 (~2021.5, 총 9회)
2021	2월	김도연 이사장 취임
	11월	김성환 원장 취임
2022	5월	민주주의와 문화 재단 'Reimagining the Building Blocks of Democracy: The Power of the Executive' 라운드테이블 개최
	9월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 '아리스토텔레스-공자 대담', '핵 전쟁의 위협과 국제 안보의 미래' 세션 개최
	11월	2022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한-아세안 협력', '동북아지역협력지수' 세션 개최
2023	3월	'태재미래전략연구원'으로 재단명 변경
	4월	AI 포럼 시리즈 ① 'AI 시대, 대학의 길을 묻다' 개최
	7월	AI 포럼 시리즈 ② '디지털 문명, 지속가능의 길을 묻다' 개최
	9월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세션 개최
	10월	제1회 태재미래교육포럼 'AI 시대 교육의 재창조' 개최
	11월	2023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핵 경쟁과 신형 안보 도전', '기후위기 대담', '동북아지역협력지수' 세션 개최
	12월	'태재미래전략연구원-상해국제문제연구원 공동 세미나' 개최

글로벌 거버넌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핵안보와 지속가능성과 같은 전 지구적 당면 과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 날로 악화하는 기후 위기는 식량, 보건, 난민 등 2차 문제로 번져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역적 갈등의 여파와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합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군사, 신기술, 기후, 마약 문제 등에 대해 상호 조율,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당면 위기 해결의 시급성 및 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핵안보와 기후 변화, 그리고 외생 변수로서의 북핵 문제를 가장 해결이 시급한 사안으로 정의하고, 국내외 유수 언론·연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의 미·중 대화를 고무할 방안을 찾고자 했다.

중국의 변화

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의 미래 전략이 미·중 갈등을 해소하고 디지털 시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어 새로운 발전 모델과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중국의 미래 변화가 한국에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탐구하며, 한반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동북아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의제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의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도시화 정책을 분석했다. 또한, 중국 주요 싱크탱크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중 갈등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문명을 융합한 글로벌 리더십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자 했다.

한반도 미래산업

최근 지정학적 변화와 AI의 발전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한 디지털 전환은 국가와 지역권 경제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의 선제적 발굴의 필요성이 가중됐다. 그 가운데 동남아시아의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대안적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후보지이자 새로운 글로벌 성장축으로 부상하면서, 한반도 미래산업의 연구 범위와 연구 영역을 한반도에서 한-아세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한-아세안 간 협력 전략 도출을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 연구를 추진했으며, 주변 지역공동체, 특히 동남아시아의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 방안과 향후 공동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초일류역량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등장은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태재미래전략연구원에서는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 운영 핵심 7대 분야(▲싱크탱크 ▲대학 ▲기업 ▲미디어 ▲정부 ▲정당 ▲국방)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는 기존 연구에 AI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게 됐다.

AI 기술이 야기할 사회 전반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다수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특히 거버넌스의 혁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을 분석하고, 미래 거버넌스의 기반이 될 인류 가치의 변화 방향을 조망하는 연속 세미나를 기획했다.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제안을 토대로 두 차례에 걸친 대중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형 조직인 DAO(탈중앙화 자율형 조직)를 설립해 일반 대중들이 참여해 미래형 정당을 운영하는 실험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그 경험을 기반으로 재단의 미션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글로벌 토론 플랫폼의 설계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차년도 재단의 주요 업무인 '디지털 플랫폼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포럼 'AI 시대, 대학의 길을 묻다'

2023년 4월 26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학 교육 혁신 방향과 새로운 교육 모델 탐색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오세정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학 교육'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미국 미네르바대학의 초대 학장을 지낸 스티븐 코슬린 교수와 김성일 고려대학교 사범대 학장,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장이 참여해 AI 시대에 필요한 대학의 역할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디지털 시대 대학 교육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인간의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AI를 활용하고, 이를 위해 창의적 비판적 사고와 인문학적 지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포럼 '디지털 문명, 지속가능의 길을 묻다'

2023년 7월 13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인류 문명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탐구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기조 발제를 맡았으며, 김용학 전 연세대학교 총장과 이리나 보코바 전 UNESCO 사무총장, 박유현 DQ연구소 대표가 토론에 참여해 디지털 기술이 불러올 새로운 문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가 촉발할 위험과 현재 SDGs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출범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와 사회 결속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물리적 현실과 디지털 현실의 융합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ESG' 개념이 제안되기도 했다.

2023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Athen Democracy Forum) 심포지엄

2023년 9월 27일 - 29일



뉴욕타임즈가 세운 비영리 기관 민주주의와 문화 재단(DCF)이 개최한 2023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에서는 “Do We Dare to Hope?”를 주제로 여러 국가의 민주주의 활동가와 언론인, 학자들이 모여 여전히 민주주의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을지 토론하며, AI 시대의 기술이 민주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논의했다.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태재대학교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Education in the Age of AI)’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고, ‘Building Blocks of Democracy’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포럼에 참석한 미래 세대 리더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향후 디지털 플랫폼 사업 내 협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주최 포럼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현황과 미래 전망’

2023년 10월 27일



김성환 원장은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이 주최한 포럼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해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과 접촉을 중심으로 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포럼에는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존 네그로폰테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사무총장 등 세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국가 간 올바른 관계 확립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제 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2023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sia Economic Community Forum) 핵군축 특별 세션

2023년 11월 2일

2023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sia Economic Community Forum, AECF)에서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이 주관한 세 개의 특별 세션 중 하나로, '핵 경쟁과 신흥 안보 도전: 핵군축을 향한 미·중 협력의 모색'을 주제로 패권 경쟁 구도에 들어선 미국과 중국이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논의했다. 패널로는 프란체스카 지오바니니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 Managing the Atom 프로젝트 총괄책임, 통 자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2023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sia Economic Community Forum) 기후 위기 특별 세션

2023년 11월 3일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해법과 미·중 협력'을 주제로 기후 위기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김찬우 전 기후변화대사를 비롯해 기후, 자원, 에너지, 기술,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국과 중국이 기후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제고하고 구속력 있는 대응 체제 수립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상해국제문제연구원(SIIS)-태재미래전략연구원 공동 세미나

2023년 12월 22일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미·중 간의 초기 대화를 촉진하고, 구체적인 신뢰 형성 및 군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상해국제문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속불가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 세미나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로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